

#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

- 하느님의 바람이 물 위에 내리꽂다 -

이환진\*

## 1. 들어가는 말

수천 년 동안 읽어온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본문이다. 1장 1절을 종속절로 읽을 것인가 독립절로 읽을 것인가 하는 논쟁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 이전의 유대교와 기독교 성서학자들은 하느님이 혼돈(chaos)을 창조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학자들은 하느님이 혼돈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곧 혼돈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의 한가운데에 창세기 1장 2절이 서 있다.

나 역시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본인의 관심은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싸움” (theomachy) 신화를 배경으로 1장 2절이 이 배경을 반영하는 구절이라고 읽는 것이다. 2절 하반절을 한글성서 역본들은 이렇게 읽고 있다.

하나님의 신선이 수면水面 위에 운행運行하시느니라. (개역)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공동번역)

하나님의 영은 물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표준새번역)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표현은 “하나님의 신”과 “운행한다”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어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을 옮긴 말이고, “운행한다”는 말은 마르헤페트(מרמהפת)를 옮긴 말이다. 우선 루아흐는 성서 속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개역』이 읽은 것처럼 “신”이나 “영”이란 뜻도 있고, “바람, 기운, 열, 숨” 등 여러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바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벨론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에서 바람은 바알이 티아맛을 제압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우주 기원론에도 바람이 물을 공격하는 얘기가 등장한다. 나중에 이 바람은 아문Amun이라는 신이 된다.

히브리성서 내에서도 바람은 하느님의 피조물로 등장한다. 150일간의 홍수가 끝난 뒤 하느님은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그 밖의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거둬들였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8장에 등장한다. 7:24-8:3을 읽어보자.

<sup>28</sup>물이(מים) 백오십 일간 땅 위에 차 있었다. <sup>1</sup>하느님은 노아와 모든 생명 그리고 그와 함께 배 안에 타고 있던 온갖 짐승들을 생각하셨다. 그리고는 바람이(רוח) 땅을 휩쓸게 하셨다.

물이(מים) 그때서야 빠졌다.

\* 뉴욕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히브리유다학과 박사과정.

\*\* W. F. 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 JBL 43 (1924), 368. E. A. Speiser, Genesis. AB 1. Double Day: Garden City, NY, 1964, 5. M. P. Deroche, “The ruach ‘elohim in Gen 1:2c: Creation or Chaos?” in L. Eslinger & G. Taylor (eds.), Ascribe To The Lord: Biblical & Other Studies in Memory of Peter C. Craigie. JSOTS 67. Sheffield: JSOT Press, 1988, 308-309.

<sup>2</sup>깊음의 샘물들(מַעֲיִן הַחַיִּים)과 하늘의 홍수 창문들이 닫혔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멈췄다.

<sup>3</sup>물이(הַמַּיִם) 물에서 계속 물러갔다. 백오십 일이 되었을 즈음 물이(הַמַּיִם) 줄어들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창 1:2와 비슷하게 물과 깊이와 바람이 등장한다. 특별히 바람이 땅을 휩쓸었다는 표현(창8:1)은 비슷한 신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바람과 물의 싸움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바람이 물을 이긴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14장에도 등장한다.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인들은 갈대바다에 이르러 옴짝달 짝을 못한다(21-22절).

<sup>21</sup>이때 모세는 바다(הַיָּם) 위에 그의 팔을 쭉 폈다.

그러자 밤새 야훼는 강한 동풍(רוּחַ קָדִים עֹזָה)으로 바다(הַיָּם)를 말리셨다.

그리고 바다(הַיָּם)를 마른 물으로 바꾸었다.

물(הַמַּיִם)이 쪼개졌다. <sup>22</sup>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הַיָּם) 한가운데를, 물을 지나갔다.

여기서는 물보다는 바다가 동풍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대신 물이 쪼개졌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다. 미리암은 출 15장에서 이러한 바람과 바다(물)의 싸움 모티브를 장엄한 한 편의 노래로 표현한다. 출 15:8은 “님의 콧김으로 물은 싸이네”(וּבְרוּחַ אַפְיֶךָ נִעְרַמוּ מַיִם)라고 노래한다. 콧김이라고 읊긴 말이 바로 “코의 바람”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미리암의 노래는 사실 이 모티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이다. 이렇게 바람과 바다(물)의 싸움은 창조 이야기에든 출애굽 이야기에든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 2. 지금까지의 본 용어 연구

지금까지 모든 성서역본들이 마르헤페트라를 움직씨를 “감싸다” 또는 “떠다니다”로 읽어왔다. 오늘날 영어성서 가운데 『새영어성서(NEB)』(1989)가 아직도 이러한 이해를 고집하고 있다.

The earth was a vast waste, darkness covered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

이 낱말은 피엘형 분사로 어근은 כ-ח-י(כָּחַ)이다. 『칠십인역』을 위시하여 모든 역본들이 “감싸다” 또는 “떠다니다, 배영하다”로 읽어왔다. 특별히 궁켈의 제안대로 세계를 크나큰 알로 생각하고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읽어온 것은 신화적 배경을 도외시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는 창세기 1장의 문맥과 용어의 쓰임 그리고 신화적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해이다.

20세기말에 이르러 이 이론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여기에 편승하여 1977년에 한국 신구교 연합역본인 『공동번역』이 이 낱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반영하였다. 곧 『공동번역』은 창 1:2를 이렇게 읽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One: From Adam To Noah. Trans. I. Abraham. Jerusalem: The Magnes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78, 24-25.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 가운데 마지막의 “기운”을 “바람, 영, 혼, 열이라고도 옮길 수 있음”이라는 주를 달았다. 앞서 언급한 히브리어 루아흐의 다양한 뜻을 잘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인역본이라 할 수 있는 『새유대출판공회역(NJPS)』(1985)은 이 낱말을 “휘몰아치다”(to sweep over)로 옮겼으며 미국 개신교 공인역본인 『새개정영어표준역(NRSV)』(1989)도 이 읽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2절).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 -  
the earth being unformed and void, with darknes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a wind from God sweeping over the eater - (NJPS)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a formless void and darkness covered the face of the deep,  
while a wind from God swept over the face of the waters. (NRSV)

『새유대출판공회역』은 『새개정표준역』과는 달리 히브리어 마르헤페트가 피엘 분사형인 점을 잘 반영하여 “sweeping over”라고 바람이 계속적으로 휘몰아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동사의 쓰임이 히브리성서 내에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우가릿어 아낫 주문(KTU 1.108)에 등장하는 우가릿어 동어원 同語源 동사 𐤀-𐤆-𐤍(rhp) 역시 공격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동사를 단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고만 읽을 수는 없다.

### 3.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싸움’ 신화

폭풍신과 바다신의 싸움, 곧 ‘신들의 싸움’(theomachy)은 우가릿 바알 신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섯 개의 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화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토판 제 4란(KTU 1.2 iv)이 바알과 얌(바다)의 싸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화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극적인 장면만을 읽기로 한다(KTU 1.2 iv 28-32).

말려버리시오, 전사 바알이여! (bt laliyn b[ʾ])  
말려버려요, 구름을 타시는 이여! (bt lrkb ʾrpt)  
정말 군[주 얌]은 우리의 포로입니다.  
[정말] 관관 나하르는 우리의 포로입니다.  
그러자 바[알은] ...로 나갔다.  
전사 바알은 그를 말려버렸다.  
얌이 정말 죽었구나 (ym l mt).  
바알이 왕이 될 것이다..... (bʾlm yml[k ]).

이 바알 신화는 바알의 왕권 쟁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화이다.\* 마지막 행에 나오는 “바알이 왕이 될 것이다”는 표현은 “바알이 다스릴 것이다”로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앞

\* Mark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n 1: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SVT 55. Leiden: Brill, 1994, 361.

행의 “얌이 정말 죽었구나”라는 말은 바알이 얌을 완전히 제압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이 모티프는 마리(Mari)에서 발견된 토판에 두 번 등장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기원전 24세기 경 아카드 시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토판을 학자들은 Mari A 1968이라고 이름붙인다.\* 내용은 이렇다.

a Ba ra aK ti-am tim qu-ra-dum a-zum ti-bi  
 4tispak a Ba a ra aK ti-a<sup>f</sup>m<sub>1</sub>-t[im] 'a-zum te-bi i-lum lugal dingir-[

아버지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여!  
 격노하시는 전사시여! 공격하소서!  
 아버지 티슈팍이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여!  
 하느님, 신들의 왕이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는 일을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티슈팍이 바다 신인 티아맛과 싸우는 폭풍신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원전 17세기의 토판으로 누르-신Nur-Sin이 지르리-림Zimri-Lim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모티프가 등장한다(ARM A 1968).

lu-t[e-e]r-ka a-na gis-[gu-za e a-bi-ka]  
 u-te-er-ka gis-tukul-[mes] sa it-ti te-em-tim  
 am-ta-ah-su ad-di-na-ak-kum

아다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대를 그대 부친의 왕좌에 되얌혀 놓았다.  
 그리고 내가 티아맛과 대적한 팔을 그대에게 내리노라.  
 나는 그대를 내 승리의 기름으로 기름부었다.  
 아무도 그대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다드는 바알의 아카드식 표현이다. “티아맛과 대적한 팔”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갖는 표현이다. 아다드가 티아맛과 싸웠다는 말은 앞의 토판과 마찬가지로 ‘신들의 싸움’ 신화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두 토판은 모두 ‘신들의 싸움’ 신화소神話素(mytheme)를 간직하고 있는 토판이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신화는 에누마 엘리쉬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 창조신화’이다. 이 신화의 역사적 배경은 학자들마다 다르나 대개는 기원전 2천년대 중후반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S. Dalley 1989:228-230)\*\*\* 바알 신화는 바알의 제한적 왕권을 말하고 있지만 에누마 엘리쉬에는 마르둑의 전적인 왕권을 그리고 있기에 바알 신화보다 더 후대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 신화의 네 번째 토판은 이렇게 되어 있다(iv 135-146).\*\*\*\*

\* J.-M. Durand, “Le mythologeme du combat entre le dieu de l’orage et la mer en Mesopotamie” Mari 7 (1993), 41-61쪽, 특별히 43 쪽.

\*\* A. Westenholz, “Old Akkadian School Texts,” Archiv fur Orientalforschung 25 [1974-7], 95-110 쪽, 특별히 102쪽의 MAD i 192 참조.

\*\*\* S. Dalley, Myths From Mesopotamia: Creation, The Flood, Gilgamesh and O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28-230.

벨(마르дук)은 시체를 조사하며 쉬고 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시체 덩어리를 나누었다.  
 그는 티아맛을 말린 물고기처럼 잘라냈다.  
 그 반쪽으로는 펼쳐놓아 하늘을 만들었다.  
 가죽을 펼쳐놓아 시간으로 삼았다,  
 티아맛의 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는 하늘을 둘러보려고 가로질렀다.  
 그리고 누디뫼드의 처소인 압수와 대칭되게 조정하였다.  
 벨은 압수의 외모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에쉬갈라의 복제품인 에쉬라를 세웠다.  
 그가 지은 에쉬라, 곧 에쉬갈라와 하늘에  
 그는 아누와 엔릴과 에아의 성소를 세웠다.

이 부분에 나오는 벨(belum)은 바알의 바벨론식 표현이다. 마르дук을 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쏘킬드 야콥슨에 의하면 마르дук이라는 이름은 수메르어로서 “아마르”(amar)와 “우투”(utu) 그리고 “우쿠”(uku)로 분해할 수 있는 이름이다. “아마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우투”는 “소”라는 뜻 이외에 “폭풍”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우쿠”는 두 낱말이 결합될 때 뒤에 붙는 어미이다. 따라서 마르дук은 “폭풍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라는 것이 야콥슨의 견해이다.\* 이 마르дук은 티아맛의 시체 한 쪽으로 하늘을 펼친다. 또한 뒷부분에는 그의 시체 다른 한 쪽으로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것으로 우리는 폭풍의 신과 바다의 신의 싸움을 잘 읽어 볼 수 있다. 이 ‘신들의 싸움’ 신화는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라부Labbu”라는 신화와 “안주Anzu”라는 신화에도 등장한다(ANET 111-113, 514-517). 라부는 사자 또는 뱀이라는 뜻으로 폭풍신과 바다신과의 싸움 신화의 변형이다. 그리고 헷족 신화인 ‘울리밀쿠 Ullimilku’에도 이 모티프가 등장하며, 이집트 신화인 ‘아스다롯과 바다’에도 언급된다(ANET 17-18).

#### 4. 히브리성서에 반영되어 있는 ‘신들의 싸움’ 신화소(神話素)

히브리성서의 야훼는 엘보다는 바알의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폭풍신인 야훼의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 성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시편 74편이다. 12-17절을 읽어보자.

<sup>12</sup>하느님은 태곳적부터 나의 임금님  
 온 누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sup>13</sup>님은 힘으로 바다(ים)를 물러가게 하시는 이  
 물(ים) 속 여러 괴물(תנינים)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이  
<sup>14</sup>님은 리위야단(ליויתן)의 여러 머리를 바수시는 이  
 들판에 사는 이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이

\*\*\*\* L. W. King (ed.), Enuma Elish: The Seven Tablets of Creation or The Babylonian and Assyrian Legends Concern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of Mankind. Vol. I: English Translations etc. London: Luzac and Co., 1902, 76-77.

\* T.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JAOS 88 (1968), 108.

<sup>15</sup>님은 샘물(מעין)과 시냇물(נחל)을 쪼개시는 이  
 님은 힘센 강(נהרות איתן)을 말리시는 이  
<sup>16</sup>낮도 밤도 님의 것  
 님은 해가 다니는 길을 내신 이  
<sup>17</sup>님은 온누리의 경계를 세우신 이  
 여름도 겨울도 님이 만드셨으니

신들의 싸움 모티브가 창조와 뒤엉켜 있는 시이다. 물의 이미지인 바다, 샘물, 시냇물, 힘센 강 그리고 바다 속 괴물인 타닌, 리워야단을 제압하시는 야훼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12절은 이 점을 간결하게 표현한 구절이다. “임금”이라고 하면 다스림, 제압을 뜻한다. 그리고 하반절 “이기에 하시는 이”(פעל ישועות)는 승리하시는 이, 곧 승리자(victor)라는 뜻이다. 곧 창조는 바다로 대표되는 물 그리고 물 속에 사는 괴물들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시편 74편은 고백한다. 창세기 1장 2절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절에 나오는 “들판에 사는 이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이”라는 구절 가운데 “들판에 사는 이”(לציינים)라는 표현이 사실 모호하다. 무슨 뜻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모세가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내듯 물을 제압하고 괴물을 쪼개야만 생명을 가져오는 먹이를 내게 한다는 점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또아리튼 뱀을 터뜨려야만 그곳에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사야 6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에스겔 32장에서도 암시적으로나마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욥 26장도 이와 같은 전통에 속해 있는 부분이다. 욥은 2-3절에서 수아 사람 빌닷에게 힘도 깨달음도 없으면서 무슨 말참견이냐고 따진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

<sup>5</sup>르바임이 아랫세상에서 몸부림친다.  
 물(מים)과 그 속에 사는 것들도 몸부림친다.  
<sup>6</sup>스올은 그 앞에서 발가벗었구나.  
 아바돈은 덮개도 없어.  
<sup>7</sup>북쪽을 허공虛空(תהו) 위에 펼치신 이  
 땅을 무無(בלימה)에 걸어두신 이  
<sup>8</sup>물(מים)을 님의 구름에 담아 두신 이 -  
 구름이 밑으로 쪼개지지 않아.  
<sup>9</sup>구름 펼쳐 님 앉으신 보좌를 가리우신 이  
<sup>10</sup>줄을 수면(פני-מים) 위에 깊숙이 새기신 이 -  
 빛과 어둠이 만나는 그 곳까지.  
<sup>11</sup>님이 호령하시니 하늘 기둥 흔들흔들  
<sup>12</sup>님은 힘으로 바다(ים)를 잠재우신다.  
 재주부려 라합(רב)을 깨부신다.  
<sup>13</sup>바람(רוח)으로 님은 하늘을 잠잠케 하신다.  
 손으로 또아리튼 뱀(נחש ברז)을 찍어 꿰뚫으신다.  
<sup>14</sup>이 모든 것도  
 님 하시는 일 살짝 보는 것일 뿐  
 님을 알아보는 산들바람에 불과할 뿐  
 님 하시는 엄청난 일 누군들 알아보리 -

욥의 이 고백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물과의 싸움인 창조사건이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점이

다. 5절과 6절에 “물과 그 속에 사는 것들”이 “망령亡靈”이라고 보통 알려진 르바임과 스올 그리고 아바돈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곧 “물”이 아랫세상을 뜻하는 용어들과 함께 쓰인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 가운데서 아바돈은 “망각妄覺” 또는 “잊혀짐”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시 88:12). 아무튼 12-13절은 신들의 싸움 모티브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며 특별히 하느님의 바람이 하늘을 잠잠케 한다는 표현이 첨가되었지만 이는 창 1장 2절의 하느님의 바람이 물을 공격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 77편 또한 ‘신들의 싸움’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다. 이 시편에는 “물”과 “깊음”과 “바다”와 “큰 물”을 제압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17-21절).

17 물(מים)이 님을 바라봅니다, 하느님!  
 물(מים)이 님을 바라봅니다. 몸서리치는군요.  
 어이구, 깊음(תהומוֹת)도 요동칩니다.  
 18 구름이 물(מים)을 쏟네요.  
 하늘이 우르렁거리네요.  
 어이구, 님이 쏘시는 화살이 마구 날아가는군요.  
 19 님의 천둥소리가 마차바퀴 구르는 소리처럼 울리는군요.  
 온 누리에 번쩍거립니다.  
 온 세상이 흔들거립니다, 마구 흔들거립니다.  
 20 바다(ים)를 님이 제압하시는군요.  
 님의 길이 큰 물(מים רבים) 위에 나있군요.  
 님의 발자취 헤아릴 길 없어라.

하느님의 원수인 “물”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시이다. 여기서는 “깊음”이 물과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이 짝말(paired word)로 등장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20절에서 야훼가 바다를 제압한다는 표현이 또한 님의 길이 큰 물위에 나있다는 표현과 나란히 등장하여 대구를 이루는 것 또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님의 길”이라고 옮긴 다르케카(דרכך)는 “길, 도道”라는 뜻의 데레크에 이인칭 인칭대명사 어미가 덧붙은 형태이다. 그런데 길이란 뜻의 히브리어 데레크는 “밟다, 짓밟다”는 뜻의 다라크(דרכ)에서 온 말이다. 곧 밟다는 뜻에서 발전하여 데레크라는 명사는 “밟음, 짓밟음, 지배, 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욘 40:19, 26:14).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힘, 지배를 나타내는 말이다. 곧 미리암의 노래(출 15)처럼 큰 물을 짓밟으시는 전사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 20절 하반절이다. 마지막 절인 21절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가축 떼처럼 님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님의 안내를 받았다”는 덧붙임이 그것이다. ‘미리암의 노래’(출 15장)를 연상케 하는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편에서 물이나 큰 물 또 바다와 깊음은 모두 하느님 엘의 적이다. 우가릿 바알 신화에서는 바다(얌)가 바알의 주요 원수로 등장한다(KTU 1.2 iv).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바벨론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에도 티아맛(“깊음”)을 마르дук이 살해하고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한다(iv 93-103). 모두 같은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사야 51장에도 이와 똑같은 모티브가 등장한다. 바벨론 이사야로 알려져 있는 제3 이사야에 들어 있는 이 모티브 역시 야훼가 바다괴물인 라합과 타닌 그리고 바다를 말리시고 제압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자.

9 깨소서! 깨소서!  
 야훼님 팔뚝이여!

힘을 옷 입으소서!  
 깨소서,  
 태곳적 날들처럼,  
 머나먼 옛날 그때처럼 -  
 님의 팔뚝은 라합을 꿰뚫지 않으셨던가!  
 타닌을 찌지 않으셨던가!  
<sup>10</sup> 님은 팔뚝으로 바다(ים)를 말리지 않으셨던가요 -  
 엄청난 깊음의 물(מִי הַחַיִּים רַבָּה)을.  
 바다 깊숙한 곳(מֵעַמְקֵי יָם)에 길을 내지 않으셨던가요?  
 하여 몸값 주고 사신 이들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던가요?

바벨론 이사야는 갈대바다의 사건을 바벨론 포로공동체의 해방과 연결시킨다. 바벨론 제국을 바다괴물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63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스겔이 32장에서 이집트를 바다괴물과 동일시 한 점과 비슷하다. 라합과 타닌이 바다괴물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다. 10절에서 야훼가 바다를 말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점은 시편 77편과도 같은 궤도 선상에 서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엄청난 깊음의 물과 또한 짝말로 등장한다. 그리고 바다 깊숙한 곳에 길을 냈다는 것 역시 깊숙한 바다를 제압하는 야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욥기 26장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출 15장)와 같은 얘기이다.

이외에도 성서 곳곳에 “신들의 싸움” 모티브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사야 19:5; 시 92-93편, 106:9; 욥 9:8, 욥 38장 등이 그 대표적인 본문이다. 신약성서의 묵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도 이 모티브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언어학적 근거

우가릿 제의 본문 가운데 KTU 1.108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있다. 이 본문은 우가릿 왕족 망자(亡者) 제의에 속해 있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우가릿 문헌에서 망자의 혼으로 알려져 있는 라피우마가 이 본문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 등장한다. 죽은 왕을 “영원한 왕이신 라피우마여”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다(KTU 1.161 참조). 이 본문의 뒷부분은 죽은 왕인 라피우마가 우가릿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다. 라피우마는 히브리어 르바임, 곧 망자에 해당되는 낱말이다(이사야 14:9). 이러한 점 때문에 스페인의 우가릿 학자 델 올모 레페는 이 본문을 죽은 왕을 신격화하는 조상제의에 속해 있는 본문이라고 본다.\* 이 본문 가운데 6-10행에는 아나티 등장한다. 아마도 아나티 이 조상제의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알과 같이 바다(야무)와 강(나하르) 그리고 죽음(모투)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전사의 모습으로 바알신화(KTU 1.1-6)에 등장하기 때문에 언급된 것으로 짐작된다(KTU 1.10 참조).

그리고 힘센 아나티 (물/술을) 마신다.  
 왕권을 쥔 여군주가,  
 통치권을 쥔 여군주가,  
 높은 하늘에 계신 여군주가,  
 땅을 다스리는 여군주가.  
 아나티 날개로 난다.

\* G. Del Olmo Lete, *Canaanite Religion According to the Liturgical Texts of Ugarit*. Transl G. E. Watson. Bethesda, Maryland: CDL Press, 1999, 185-6.

높은 하늘에서 내리꽂는 이(rhpt [b sm]m rm).  
엘의 송아지를 먹는 이,  
뿔에서 .....을 마시는 이.

이 가운데에서 아낫은 날개를 달고 있는 신으로 등장한다. KTU 1.10의 두 번째 난 10-14행에는 아낫이 날개를 달고 있는 강한 여신으로 나온다(ii 10-23).

성처녀 아낫은 날개를 펼쳤다.  
그는 그의 날개를 펼쳤다.  
날개로 멀리 날랐다.  
들소가 북적대는 샤마크 해변을 향해.  
그때 전사 바알이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바로 성처녀 아낫을 본 것이다.  
바알의 자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를.  
그에게로 서둘러 달려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바알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자매님, 만수무강하소서!  
그대의 힘있는 뿔이, 성처녀 아낫이여,  
그대의 힘있는 뿔이 바알에게 기름붓기를!  
하여 바알이 그 힘차게 나르는 힘으로  
그들에게 기름부을 수 있기를!”

여기서 아낫은 앞의 조상제의문(KTU 1.108)과 같이 힘을 지닌 신으로 등장한다. 그 힘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나르는 모습으로, 또한 뿔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뿔은 성서에서 그리고 시리아-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모두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성서로 돌아가자. 우선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32장을 보자. 모세는 늘그막에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야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놓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을 불러모아 “하늘이여 귀기울이라. 내 입을 열리라. 대지여, 내 하는 말 들어보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 가운데에서 10-12절을 읽어보자.

<sup>10</sup>거친들 거기서 그를 찾아내시는 님  
웅웅대는 빈들(יַרְדֵּן) 바로 거기서  
그를 에워싸시는 님  
그를 지키시는 님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님  
<sup>11</sup>둥지를 짓는 독수리처럼  
새끼들 향해 내리 꽂으시는(יְרִיב) 님  
날개 활짝 피시어 붙잡으시는 님  
날개 깃으로 나르시는 님  
<sup>12</sup>야훼님 홀로 이끌어 주시니  
그 어떤 다른 신도 그 편이 아니니라

여기서 모세는 야훼가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동지를 향해 내리꽂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예레미야도 23장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뼈마디마다 몸 속에서 마구 공격당하는 격정적인 신체 변화를 그리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 낱말이 모호한 뜻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램 23:9을 읽어보자.

속에서 내 마음이 산산히 부서졌어요.  
내 뼈마디마디가 이미 부서져 내렸어요(רָפוּ).  
비틀거리는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저는.  
술에 빠져 꼼짝 못하는 술꾼이 되었어요, 제가요.  
님 때문이죠  
엄청난 님의 말씀(רַבְרִי קִדְשׁוֹ) 때문이죠.

사실 “내 뼈마디마디가 이미 부서져 내렸어요”라고 옮긴 두 번 째 행은 그 뜻이 분명치 않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원인은 바로 야훼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문자적으로 옮기면 “거룩한 말씀들”인데, 이 가운데 “거룩한”이라는 일차적인 뜻을 지닌 히브리어 꾸밈씨 카도쉬(קָדֹשׁ)는 “힘, 능력, 지배”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야훼의 힘찬 말씀을 받고 몸과 마음이 산산히 부서져 내린 예언자의 고뇌를 라하프(רָחַף)라는 움직임씨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

## 6. 문헌의 구조적 근거

창 1:1-2은 6일간의 창조를 요약한 말이다. 1절은 종속절로 읽어 “땀 처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내실 때”라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은 비어있고 혼돈스러웠다”라는 선언이 나온다. 곧 하느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땅은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땅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상반절이다. 그 다음 이런 말이 등장한다.

וַחֲשַׁךְ עַל־פְּנֵי תְהוֹמוֹת  
וְרוּחַ אֱלֹהִים מְרַחֶפֶת עַל־פְּנֵי הַמַּיִם

어둠은 깊음의 얼굴 위에 드리워 있다.  
하느님의 바람은 물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는다.

이 하반절은 대구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대구법은 (a1)-(b1)-(c1) :: (a2)-(b2)-(c2)이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의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어둠(a1) - 위에 [드리워 있다](b1) - 깊음의 얼굴(c1)  
하느님의 바람 (a2) - 향해 내리꽂는다(b2) - 물의 얼굴을(c2)

어둠(a1)과 하느님의 바람(a2)이 대구를 이루고, 깊음의 얼굴(c1)과 물의 얼굴(c2)이 마찬가지로 대구를 이룬다. 곧 “어둠”과 “하느님의 바람”이 반드시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같은 기능을

\* Baruch A. Levine, “The Language of Holiness: Perceptions of the Sacred in the Hebrew Bible,” in M. P. O’Connor and D. N. Freedman (eds.), *Backgrounds For The Bible*.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7, 248-9.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하느님의 공격무기가 바로 “어둠”(אֲדָמָה)과 “바람”(רוּחַ)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깊음의 얼굴”(c1)과 “물의 얼굴”(c2)도 대구를 이룬다. “깊음”(אֲדָמָה)과 “물”(הַמַּיִם)은 히브리성서에서 종종 같은 뜻을 지닌 짝말로 등장한다. 수식어인 “얼굴”은 같은 말인 파님(\*פָּנִים)의 구문형(פָּנִי)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에 (드리워 있다)”는 요소(b1)와 “향해 내리꽂는다”(b2)라는 요소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어 전치사 알(עַל)이 성서 곳곳에서 “에 대항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아람어에서 존재동사인 하야(הָיָה) 또는 하바(הוּבָה)가 전치사 알과 결합하여 “하야/하바 + 알”이라는 구조로 등장할 때는 “...를 공격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다.\* 창세기 42:36과 에스라 4:20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자식들을 잃고 고통스런 상황에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대들은 내게서 모든 자식들 빼앗아 갔소.  
 요셉도 없소.  
 시므온도 없소.  
 벤야민도 빼앗아 가지 않았소?  
 내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소(עָלֵי הָיוּ כְּלֹנָה).

마지막 부분을 바룩 레빈 교수는 Everything turns against me!로 옮긴다.\*\* 곧 모든 일이 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풀어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위의 관용적 표현은 적대 또는 반대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아람어 표현은 더 적극적으로 이 뜻을 드러낸다. 사마리아의 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이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에 대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보낸 회신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에스라 4:18-20 『\*표준새번역』).

<sup>18</sup>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sup>19</sup>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 왔으며, 그 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sup>20</sup>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 곳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הוּוּ עַל־יְרוּשָׁלַם), 유 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기원전 8세기의 문헌으로 학자들이 자리매김하는 데이르 알라 새김글 첫째 란(Deir 'Alla I)에는 요단 동쪽 길르앗의 예언자 발람의 신탁에 “어둠”이 신들의 심판 징조로 등장한다. 곧 “어둠”은 신들의 무기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6-7행).\*\*\*

궤매어라, 하늘을 짙은 구름으로 덮어 버려라.  
 하여 어둠(אֲדָמָה) 만이 있게 하여라. 광채는 없게 하여라.  
 꺾꺾 싸매어라. 반짝이는 어떤 빛도 없게 하여라.  
 하여 공포를 일으키거라.  
 [ 그리고 엄청난] 어둠(אֲדָמָה)만.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라.

\* B. A. Levine, Numbers 21-36. AB 4A. New York: Doubleday, 2000, 451.

\*\* 바룩 레빈 교수의 1998년 10월 18일 강의록.

\*\*\* B. A. Levine, “The Deir 'Alla Plaster Inscriptions,” JAOS 101 (1981), 197. 같은 저자의 Numbers 21-36, 244-246.

이 장면은 요단 강 건너편 지역에서 예언활동을 하던 브올의 아들 발람이 꿈에서 본 신탁이다. 이 발람은 민수기 22-24장에 나오는 성서 속의 예언자인 발람과 같은 인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 신탁은 꿈에 샤다이 신들(shadayin)이 회의를 열면서 샤가르-이쉬타르(Shagar-we-Ishtar) 신에게 내린 명령이다. 발람이 이 명령을 듣고 이튿날 자기를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준 내용이다. 곧 온 땅이 칠후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버리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어둠은 샤다이 신들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의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짙은 어둠 역시 하느님이 이집트를 공격하시는 최후의 무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의 문학구조 속에서 평행 요소로 등장하는 “어둠”은 이렇게 하느님의 무기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 7. 나가는 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폭풍신인 하느님(엘로힘)의 바람이 원수인 물을 공격하고 있다(“to swoop down”)는 선언이 창세기 1장2절의 선언이다. 예레미야 51장 1절은 하느님의 바람이 바벨론을 휩쓴다는 말이 나온다.

나는 일으키리라.  
 바벨론에 대항하여  
 랩 카마이 주민에 대항하여  
 파멸의 바람(מַרְבַּח)을.

이 “(파멸시키는, 쓸어버리는) 바람”은 예레미야 51장 16절에도 다시 등장한다(13절 참조).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되는 선언이라고 생각된다. 예레미야와 창세기 1장의 사제 그룹(P) 기자는 거의 동시대 인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즈음에 사제 그룹(P)에 의해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제국 바벨론의 압제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창조 사건과 연결시켜 고백하고 있다. 마르헤페트(מַרְחֵפֶת)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